



## 장애우 찾아 봉사



▲ 성금과 위문품 전달

11일 한 번 더 방문하여 선행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된 불우이웃을 찾아 연탄나르기, 수해복구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 9월 6일 민경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6명이 자폐, 뇌성마비 장애우 사회복지시설인 평화의 집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을 방문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민경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전임 직원이 모금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한 데 이어, 평화의 집 내부 청소를 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야외활동이 힘든 장애우들과 짝을 이뤄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장애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단은 이번 방문에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10월

## 『제안의 날』제정 · 운영



▲ 제안마당 명칭공모 시상

사내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제안의 날』을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안의 날” 시행(9.25)을 기념하여 제안마당 명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였고, 열띤 경합을 통해 선정된 “아라샘터”를 제안마당의 새로운 명칭으로 활용하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제안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아라’는 ‘바다’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공단의 이미지를 대표하였으며, ‘샘터’는 끊임없이 샘솟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의미한다.